

## 아직도 가야 할 길: 출소자의 아내가 경험하는 삶의 도정(道程)\*

이 동 훈                      전 지 열<sup>†</sup>                      김 주 연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4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로 나타났다.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노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하였으며, 과정분석 결과 수치감/고립감, 은밀한 타진, 잔존 자원 동원, 도전, 회복/유지의 5단계로 도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출소 이후 아내의 심리적 경험 및 가족복원에 필요한 도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주요어 : 출소자, 출소자 아내의 경험, 근거이론접근

\* 본 논문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2014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작업과 모델유형에 따른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2015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면접자료를 사용하였음.

<sup>†</sup> 교신저자 : 전지열, 성균관대학교,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명륜3가) 호암관 204호

Tel : 02-740-1984, E-mail : yeori102@hanmail.net

1997년 금융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98년 67,883명과 1999년 68,087명으로 최고의 인원을 기록하였다(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기준 50,128명의 여전히 높은 수감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수감자의 기혼여부 및 가족사항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수감자의 절반 정도가 기혼으로 파악되며 이 중 70%가량이 최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서울신문, 2013, 01, 25). 기존 수감자들에 더하여 해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입소함에 따라, 더 많은 수감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수감되면, 그의 아내와 가족 또한 함께 벌을 받는다(Showalter & Jones, 1980)란 말처럼,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의 수감은 남아 있는 가족 모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이며 위기로서 다가온다.

Hill(1965)에 의하면, 가족 위기 이론(Family Crisis Theory)은 본래 “위기(crisis)”로 정의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정의된다. 가족구성원의 수감은 가족들에게 다분히 위기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국외 연구들에 따르면, 수감으로 인해 강제로 가족이 해체되는 외상적 분리를 경험하며, 죽음으로 가족을 잃는 것보다 수감으로 가족 구성원을 잃는 것이 훨씬 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omer, 1979; Jorgensen, Hernandez, & Warren, 1986). 특히, 남편의 수감으로 가장(家長)의 상실을 경험하는 아내들은 경제적 짐을 오롯이

짊어지며,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상실로 인해 사실상 한부모가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또한, Lowenstein(1986)이 실시한 수감자 아내의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편 수감으로 아내가 경험하는 고충들을 개인적(personal), 도구적(instrument), 표현(expressive)의 세 가지 카테고리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아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외로움, 성적욕구 불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구적 수준에서는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 및 법적문제를 담고 있다. 표현 수준에서는 남편-아내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를 통해, 남편의 수감으로 아내들이 가족 내 역할붕괴로 인한 부담감, 남편에 대한 염려와 성적욕구로 인한 위기, 그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반응과 대처방식은 가족별로 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수감으로 해체되었다가, 회복과 재구성의 기간을 갖는다(Carlson & Cervera, 1991).

이처럼 남편의 수감이라는 위기에 부딪쳐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남편의 출소까지 버티어낸 아내들에게 남편의 출소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온다. 대다수의 아내들은 남편 출소 후 이러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들은 남편이 돌아온 이후에도 자녀양육과 더불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중년에 여성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함께 직업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각 역할들이 상충할 때 적응에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특히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울감이 더

높아지게 된다(정선화, 2012). 출소한 남편은 남편대로 사회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어, 이러한 아내들의 고충을 남편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출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 중 하나는 수치심이다. 수치심이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으로 열등한 느낌, 숨고 싶은 느낌, 피하거나 자신을 억제하는 느낌을 말한다(김용태, 2010). 관계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 사회적으로는 집단주의와 군중심리와 같은 현상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수치심을 덮으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수치심과 관련하여 자신의 중요한 주제를 개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격적 수치심과 행동적 수치심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당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심-숨김-증상-수치심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김용태, 20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원대상 출소자 588명 중 150명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답했으며, 이 중 35명이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눈초리에 시달리다 못한 가족들이 출소자에게 마음의 벽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3, 11, 26). 이처럼 출소자 아내들은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직면한 어려움으로부터 숨고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치심 치료의 핵심은 개방적 태도와 자세인데(김용태, 2010), 출소자 아내들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며, 상황 상 개방적 태도를 갖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딱히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소자 아내들은 수치심을 피하고자 자신을 은폐하려 한다. 자기은폐란 개인이 지각하기에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려는 적극적인 경향을 말한다(김동민, 양대회, 2010). 자기은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불편감과 불안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문제상황에 놓이게 되면 낮은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로 인해 심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각은 하나, 자기개방의 두려움으로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Jack(1991)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self-in-relation)’ 모델에 따르면, 여성들은 상호관계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침묵을 하게 되지만, 자기침묵을 하면 할수록 우울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인숙, 이지연, 2009에서 재인용). 출소자 아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며 외부에 남편의 출소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고,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노출을 꺼려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 아내들이 경험하는 수치심과 자기은폐와 같은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식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사회관계망에서 가치 있는 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중년 여성의 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

선화, 201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증상 발현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지가 결핍되면, 불안, 우울, 자신감 상실을 초래한다(정선화, 2012). 따라서 출소자 가정에 대한 냉담한 사회적 시선 속에 출소자 아내들은 사회적 지지의 구축은 커녕 점점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 아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가중시킨다. 때문에, 출소 후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가정의 해체는 결국 출소자의 재범이나 자녀의 초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동아일보, 2013, 11, 26).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지난 2012년 복권기금(BIG · Big Lottery Fund)에서 출소자 가족을 위해 31만 파운드(약 5억 28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민간단체인 '노란 리본' 기금에서 2011년 약 9억 3500만 원을 모금해 이 중 43% 가량을 출소자의 가정복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왔다(동아일보, 2013, 11, 26). 이처럼 출소자의 아내들이 겪는 어려움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소 후 가정으로 남편이 돌아오고 난 뒤, 출소자 아내들이 겪는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외에서도 출소자 아내보다는 수감자 자녀와 수감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Bahr, Armstrong, Gibbs, Harris, & Fisher, 2005; Nesmith & Ruhland, 2008; Yocum & Nath, 2011)가 대다수이며, 국내의 경우 수감자와 출소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가족관계가 교정 및 교화에 미

치는 영향 혹은 가족복귀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연구들이(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2012; 이동임, 천정환, 2015)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출소 후 실제적으로 아내들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특히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가정유지에 핵심이 되는 출소자 아내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는 조금씩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출소 후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을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도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은 사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변화를 설명해 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2012). 남편의 수감이라는 커다란 사건 이후, 남편 출소와 함께 또다시 흔들리는 가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아내들의 변화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근거이론 접근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소자 아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출소자 아내들의 경험을 탐색해보므로써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출소 이후로 출소자 아내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 방 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20여명의 출소자의 아내들을 소개받아 그 중 일부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소개받은 20여명의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주제에 대하여 설명한 뒤, 여기에 동의한 17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녹음과 축어록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이름 및 지명은 익명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인터뷰 중에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언제라도 연구에 대한 참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연구 시작 전에 고지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의 인터뷰 비용이 지급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995년에 개소한 갱생보호공단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출소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비롯하여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주거지원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은 부양가족, 경제여건, 자립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체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던 출소자들에 해당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출소 후 평균 18개월(최소 3개월 ~ 최대 36개월)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배우자들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절차 및 연구윤리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참여자의 자택 혹은 그 밖의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면접 장소를 선택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인당 면담횟수는 1회이고, 1회당 면담시간은 평균 10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남편의 출소 후 아내들이 맞닥뜨린 어려움과 버텨내는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면담하였다.

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의 평가기준(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여, 상담전공 교수 1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1명, 상담전공 석사과정 1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쳤으며, 교정전문가에게 내용을 보내어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박사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 결 과

###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남편의 수감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1과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남편의 수감관련 사항

No	나이	남편 출소 후 아내의 직업활동	거주지역	자녀	남편 나이	남편의 범죄유형	남편의 수감기간	남편 출소 후 경과기간	남편의 현재 직업활동
1	30대 후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1	30대 후반	방화미수	10개월	24개월	취업
2	50대 중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3	60대 초반	사기	21개월	24개월	취업
3	40대 중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3	40대 후반	폭행	8개월	4개월	취업
4	50대 후반	취업	경상권	2	60대 초반	사기	36개월	24개월	취업
5	50대 중반	취업	강원권	1	50대 초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12개월	취업
6	20대 중반	취업	강원권	1	20대 후반	폭행	3개월	10개월	취업
7	40대 후반	취업	경상권	3	50대 초반	폭행	10개월	12개월	취업
8	40대 초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2	40대 초반	강도	36개월	36개월	취업
9	30대 후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1	40대 후반	마약	14개월	24개월	취업
10	40대 중반	취업	전라권	3	40대 후반	사기	21개월	3개월	취업
11	30대 후반	취업	전라권	2	40대 초반	횡령	11개월	3개월	취업
12	30대 후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1	30대 후반	폭행	24개월	36개월	취업
13	40대 초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4	40대 중반	강도	48개월	18개월	취업
14	30대 후반	취업	충청권	3	40대 중반	절도	60개월	24개월	취업
15	50대 초반	취업	충청권	2	50대 중반	사기	18개월	12개월	미취업
16	30대 중반	미취업	서울/경기/인천	3	30대 중반	강도	36개월	10개월	취업
17	30대 후반	취업	서울/경기/인천	3	30대 후반	횡령	24개월	18개월	미취업

같다.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 출소자 아내의 경험과정에 관한 기술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를 줄단위로 분석하고 개념군을 발견하여 이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된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143개의 개념과 4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6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표 2 참조).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 및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남편 출소 후 가정 재건과정의 구체적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출소라는 새로운 출발선 상에 선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보다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출소 후 남편의 직장문제나 사회적응 문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과(연구참여자 16), 남편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것에 대해 미리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5).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 수감 중 홀로 경제적, 심적 어려움에 시달려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출소 후 가족 관계 및 경제적 기반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	막막하고 두려운 시작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출소자 가정이 되어 주위 시선이 두려움. 교도소 다녀왔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낌		
출소 후 남편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함	변화된 남편을 기대함	
수감 중 어려움을 홀로 겪은 아내를 위로해줄 것을 기대함		
출소 후에도 남편에게 접근하는 예전 나쁜 친구들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접 통화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 함	근목자흑(近墨者黑)에 대한 염려	
교도소에서 만났던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주로 어울려 지내는 남편이 싫음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의 택시면허를 없애버린 정부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남편을 뺄까 다며 다독이면서도 남편이 다시 범죄의 길로 가게 될까 불안함	출소 후 직업을 갖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걱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가석방을 받고 나온 남편이 보호관찰 하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하고 교육 받아야 해서 직장을 잡기가 애매함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 꾸준히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남편 때문에 불안함	남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	
남편이 술을 마시면 다혈질로 변함. 술을 하루걸러 하루 먹다시피 하면서 폭언, 폭행들로 한 부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		
화를 잘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일도 안 나가며,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자기조절을 잘 못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남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은커녕, 쉽게 욕해서 무턱대고 화부터 내고 욕하는 남편		
남편의 출소 후에도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아내	고된 일과 양육으로 지침	
회사 다니며 틈틈이 자녀들을 돌봄		
성하지 않은 몸으로 오전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곤함		
일을 해야 하는데, 방학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됨		
남편이 진 빚을 갚느라 마이너스 인생	끊이지 않는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편을 타 지역으로 기술이라도 배우러 가도록 하자니 자녀를 혼자 양육할 것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고, 보내지 않자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함		
법무공단에서 제공한 주거시설에서 주거지원을 함께 받는 사람들과 살다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라는 생각에 서로 왕래도 없고 인사도 하지 않음	공단집단지거지원 시설의 그림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의 거주지 주변에는 매일 밤 유리 깨지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 자녀들에게 귀 막으라고 함		
하다 못해 노가다도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일을 시켜준다는 말에 힘없고 돈 없는 자신들은 정말 계속 어렵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낌		
의욕만 넘치는 남편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움	물가에 내는 아이 같은 남편의 불안정한 직장 생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버티지 못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핑거져 나와 직업을 수시로 바꾸는 남편		
남편이 출소 후 재기를 위해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들과 경쟁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 본인은 노력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안심시키지 못함		
남편이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함. 적성에 안 맞더라도 가정을 생각해서 공장이라도 다니라고 권함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남편의 수감을 나 몰라라 한 시택이 원망스러워 가족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시택식구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냄	시택 식구에게 남아있는 원망	시택,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남편을 불신하는 시택식구가 원망스러움		
주거지원을 받기 전 친정집에서 살 때 죄인인데 밥 얻어먹고 늦잠 자는 것도 처가식구들에게 미안해 자꾸 밖으로 걸돌던 남편	떨어진 처가	
오죽했으면 수감이 됐냐며 남편을 잘 믿지 않으시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사실이 창피한 친정어머니. 출가한 자녀들이 외할머니께 집에 와 계시라고 해도 안 오심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납부금이 적은 국립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생활하기도 벅차서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는 게 미안하고 스트레스 받음		
아이들에게 못해주는 것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바라기만 하는 아이들과 부딪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녀에게 염치 없음을 느낌	생활고로 인한 부모역할의 어려움	
부모가 돈을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고 시집가면서 딸들과, 스스로 등록금 마련해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		
남편이 수감됐을 때, 자녀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두려운 마음에 자녀들에게 꺼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덮으려 함. 남편과 공백을 별거로만 생각하고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 함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감내할 자신이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수감으로 상처 받을까 제일 불안함		
남편 수감 중, 부모의 빈 공간에 대한 상처만 안고 살았으면 좋겠음		
자녀가 결혼하고 취업할 때 남편의 수감사실이 문제가 될까 걱정됨	남편의 수감사실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	
구에서 지원하는 부모-자녀 상담을 통해, 아빠가 있다가 없어진 환경(아빠의 수감)이 아이에게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주었음을 깨닫고 미안함		
출소한 남편이랑 살면서 애들한테 똑같은 삶이 되풀이 될까 걱정됨		
남편의 수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고, 사춘기까지 오면서 학교 공부에 소홀해진 큰 아이가 걱정스러움		
자녀가 남편의 문제행동(술 마시고 화풀이)과 언어를 닳을까 걱정됨		
예전 일들을 끄집어내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싸움으로 번져, 마음에 담아둠		
아내의 이중적인 어려움을 알아주기는 커녕 이해만 바라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된 섬처럼 지냄	남편과 깊어지는 마음의 골	
남편의 수감된 과정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 얘기를 꺼내면, 다 정리된 일이라고 대화를 꺼리는 남편이 답답함		
고슴도치가 가시를 하나하나 빼고 있는 과정이니까 참아달라는 남편이 본인만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남. 상의 한마디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불쌍하니깐 봐달라는 남편에게 화를 내자 매정하다고 말하는 남편	돈, 술, 집안일 등으로 파국을 맺도는 부부 갈등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
공백 기간 동안 세상이 바뀌어 있고 하다못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다며 별거 아닌 일에도 성질내는 남편과 동네 창피하다 할 정도로 싸움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집안 일을 분담하는 데, 본인만 한다고 생각함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범주
믿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술을 마시는 남편을 용납하기 어려워 감동이 생김		
자기생각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안 받아들여진다는 생각 때문에, 출소 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등 자기주장을 많이 해서 감동이 생김	돈, 술, 집안일 등으로 파국을 맴도는 부부 갈등	
출소 후 초반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점차 급진적인 부분에서 서로 예민해 지다보니 자주 다투게 됨.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내가 돈으로 보이냐”는 반응을 보이는 남편에 섭섭함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
오랜만에 만나 아빠와 부딪치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움. 욕하는 아빠 눈치를 보는 자녀들을 보면 미안하고 중간에서 중재하려 하지만 잘 안됨		
출소 후 자녀들이 반겨줄 것을 기대했던 남편과 온 가족을 고생시킨 장본인인 아빠를 외면하는 자녀 사이에서 마음이 불편함.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 때문에 남편이 없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음	부자간 싸움에 전진공공(戰戰兢兢)	
수감 전에는 아이들과 잘 지내던 남편이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자, 외국 갔다 오더니 아빠가 변했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미안하고 안타까움		
남편 출소 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음	감추고 싶은 수감 사실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
남편이 수감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불이익이 생길까 숨기며 조마조마 함		
낙인이 두려워 남편 수감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음	고립무원의 생활	
가족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음		
수감 전부터 가족들에게 잘 해왔기 때문에, 출소한 남편을 친정어머니가 오히려 다독여 줌		
사위도 자식이라고 받아들인 친정 부모님이 고마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친정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으나, 가족지 않도록 현재 열심히 살도록 지지해 주시는 것이 고마워 부응하려고 노력 함		
어찌됐든 버티고 견뎌 가정을 유지해가는 것에 고마워하는 친정어머니		친정과 시댁의 지원
학원 강사인 이모가 진로에 대한 조언과 과외비를 대주는 등 자녀 학업을 지원해 줌	친정식구의 경제적 지원	
주거공간이 없어 친정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비를 아낌		
아주머니 내외가 출소하고 오갈 곳 없는 가족의 상황을 알고 기꺼이 집을 내어주심		
시부모님이 따듯하게 잘 대해 주심	시댁의 도움	
남편이 친형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됨		
남편 수감 중 생활비를 벌러 나가지 않고 자녀양육에만 몰두해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출소 후 바르게 성장한 조카들을 보며 당시 나의 선택을 이해해 준 친정오빠	공감과 지지	
누구한테도 말 못할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 상담 받으며, 치유 받고 용기를 얻음		역경 극복의 밑거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됨. 추후 맞벌이를 위해 요리 자격증 공부함(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혼자 생활이 많아지기 전까지 육아에 전념하기로 함)		
출소한 남편이 식사하러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을 때 생각 없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종교생활로 균형 잡음	도구적 몰입	
집안 일을 돕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남편 덕에 행복함		
아침에 눈떠도 아빠가 옆에 있지 좋아하는 자녀를 보며 행복함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역할을 해내고자 노력하는 남편이 감사함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아빠와 싸우더라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곁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		
자식이 무심한 무서운 뉴스에서 사건사고를 볼 때마다 자식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남편		
출소하자마자 택시운전을 한다거나,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려 노력하는 남편을 보고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 함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범주
힘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어 내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		
남편 출소 후 생계유지를 위한 아내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감소 됨		
이전에는 신랑이 해주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신랑의 빈자리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	미우나 고우나 대들보 같은 남편의 존재가 소중함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수감 중인 남편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낌		
떨어져 살아보니 아파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낌		
잘났든 못났든 애기 아빠고, 애 아빠가 있어서 든든함. 앞으로 좋은 일도 올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 전에는 주도권을 잡고 살았으나, 출소 후에는 아내의 뜻에 최대한 맞춰서 사는 남편		
주말이면 약속을 취소하고서 라도 아내와 콘서트, 연극이라도 보며 시간을 함께 보냄		
수감 전에는 상의하지 않았었는데, 출소 후에는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함	아내에 대한 태도변화	
남편 성격이 강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인데 기분이 좋을 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의 생각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더니 시간이 가면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 함		
아내를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남편의 작은 변화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싹틔게 함		
출소 전에는 마음대로 했던 남편이 출소 후 자녀들과 의논함		
남편이 자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함	자녀에 대한 태도변화	
자녀를 챙겨주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 보니 사위들한테도 대우받음		남편의 재발견
출소 후 술도 끊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화되며, 뭐든 해보려고 하는 남편을 보며 희망을 품음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싹틈	
출소 후에는 집에서만 술을 먹으려고 하는 등 가정에 더욱 충실해 짐		
남편이 출소 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회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 됨		
가장으로서 자녀가 아빠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음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남편의 숙제	
화가 났을 때 분노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음		
남편이 술 안 먹고 건강관리 잘하며,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함. 사회나 가정에서 어른 노릇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 줬으면 좋겠음		
주거지원을 해 준 법무부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		
취직하고 자격증을 따는 등의 자립의지 노력을 한 결과 법무부의 주거지원을 받게 됨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됨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을 때, 법무부의 도움으로 주거 지원을 받고 면허증을 다시 따게 됨		
법무부에서 자녀의 교복, 교재 지원받음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
공단에서 자녀의 도서지원과 자녀 안정 지원을 받음	경제적 지원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꿈나무 카드로 자녀 점심/저녁 지원받음		
공단에 신청해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한 남편	심리적 터전의 재건	
돈 때문에 받지 못했던 부모교육, 자녀상담 및 다양한 활동들을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됨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계속 4)

개념	하위범주	범주
옛날 어려움들을 떠올리면 괴로워 생각하지 않으려 함		
과거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바쁘게 일함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남편의 수감	
남편도 주변 시선이 두려워 수감 전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며, 수감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못마땅함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해 하염없이 지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결함	속내를 감추고 참으며 견딤	삶과 타협하기
원래 참던 성격이 아니었는데, 남편 출소 후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 내는 게 싫어 말하지 않고 참음		
삶의 의욕이 없어 지칠 때, 아이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함		
남편 수감으로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10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보상받기 위 해서라도, 앞으로 더 짧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기	
옛일은 덮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려 노력함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음		
가족이 다 같이 조조영화보고 점심 먹고 오는 데에서 행복을 느낌		
출소 후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남편을 생각해 적응기간 동안 저축하려고 애씀	남편의 출소 후 맞이 준비	
남편이 근무할 일자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다님		남편의 사회복지 조력자 되기
제취업할 때 신원조회하는 것이 불안해하는 남편을 다독임	남편에게 용기 북돋워주기	
남편이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외출할 때 옷차림까지 신경 써줌		
사람 만날 때마다 자신감 없어 하는 남편을 격려함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게 됨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바르게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함	역경을 이겨낸 뒤 삶을 이해하게 됨	
부족한 것이 없어 절약이란 걸 모르고 살다가, 남편 수감을 통해 절약하는 삶을 배움		
좋은 사위들 만나고 손주도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헤어지지 않고 살아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		
집에서 남편이 짜증나거나 못마땅할 때 생각 없이 무시하는 듯한 반응이 나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균형 잡고 대하려고 노력함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
결혼하고 남편이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렸으니 이제 내가 벌어들 수도 있다고 편히 생각 하기로 함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됨	
처음엔 남편에게 원망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도 나름 노력하는데 안 풀려서 그렇다고 받아들여지게 됨		
자녀가 건강하게 착하게 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함		
과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괴롭지만,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려 노력하는 속 깊은 자녀들 때문에 버텨	현실을 이겨내는데 곁에 속 깊은 자녀들이 함께 있어 감사함	
하루 4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자녀들이 기특하고 고마움		

표 2.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 목록

(계속 5)

개념	하위범주	범주
술 먹으러 나간 남편이 집에 오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새벽 6시에야 집에 돌아옴		
남편 출소 직후 악화된 부부 관계로, 남편에 대해 기대보다는 사실상 포기하고 살기로 함		
출소 후 자기 주장이 강해진 남편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	벼랑 끝 위기의 가족	
남편 출소 후 돈 문제로 매일 싸우며, 싸울 때마다 남편이 '넌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할 때 서운함		
말하면 어차피 싸움으로 번지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 큰소리 나면 입을 닫아버림		
남편의 문제행동으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해지고 현실적으로 변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더 이상 사람을 믿기 어려워짐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용히 잠만 자고 싶음	마음이 곱은 아내	
남편 수감기간 동안 도와주지 않은 가족에 대한 서운함으로 남편 출소 후에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		
남편 수감 중 어려웠던 시기가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여파가 오래가서 생각을 안 하려함		
특하면 화내는 출소한 아빠 눈치를 보며,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		
출소 후 갑자기 아빠가 욱하고 화낼 때마다, 엄마에게 '왜 저렇게 화가 많은 아빠랑 결혼했냐?'고 묻는 자녀	깊어가는 자녀와 남편 간 갈등의 골	
출소한 아빠가 집에 돌아온 이후로, 모든 주도권을 아빠가 행사한다고 생각하며, 아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녀		

온 아내들은 남편의 출소가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교도소까지 다녀왔으니 출소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변화된 것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남편의 출소와 더불어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남편이 거들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힘을 얻기도 했다(연구참여자 3, 16).

“제가 수원까지 출퇴근을 하니깐 아침, 저녁으로 도와주는 그 부분에서는 고맙지만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직장생활 하다보면 서로 분담해서 하는 부분인데 애 아빠는 본인만 한다고 생각하고.” (연구참여자 3)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늦거나 집에 없을 때 자기(남편)가 일찍 들어와서 애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내가 있을 때 나를 챙겨주는 거, 이제 도와주는 거, 집안일 도와주는 거를 생각을 하니깐.” (연구참여자 16)

####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그러나 남편이 출소한 후, 아내들은 도박, 술, 고집스러움 등 남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상황들을 다시 마주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매일 술을 마시며 폭언,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이럴 때마다 아내들은 남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

르진 않을까 불안해졌다. 연구참여자 9는 남편이 주위사람들로 인해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남편의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남편 주위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남편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7은 수감 중 알고 지낸 사람들과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이 불안했고, 연구참여자 15는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의 택시 면허를 없애버린 정부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남편을 다독이면서도, 수감 전 친구들보다 수감 중 알게 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다시 범죄의 길로 가게 될까 염려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남편이 술과 도박을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도박꾼들에게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이었다.

“또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질까봐 내심 막 괜찮다, 괜찮다 옆에서 더 좋은 직장이었겠지. 천천히 그동안 많이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좀 천천히 찾아보자고. 사고 칠까봐 내심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하 중략) 자기 처지가 또 어려운 처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또 생각을 잘못 갖게 될까봐 그게 이제 지금 가장 좀 불안하죠. 집에서는 그런 생각 갖지 않게. 뭐 자기도 물론 마음은 불안하고 안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옆에서 한숨 쉬고 있으면 더 힘들어 할까봐 괜찮다고.” (연구참여자 15)

“나오면 이리이러하게 생활을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회를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나오면 무지갯빛은 아닐 거다.

그런데 자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업하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업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랬더니 항상 마지막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오면 이 형님하고 뭐를 하기로 했고 저 형님하고 뭐를 하기로 했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연구참여자 17)

####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 출소 후에도 경제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했음에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여야 했다. 어린 아이를 둔 연구참여자 15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했다. 연구참여자 2는 본인의 삶을 ‘남편의 빚 갚는 마이너스 인생’이라 비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소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주거지원 시설 또한 거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웃끼리 서로 왕래가 없었으며 새벽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등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우는 집안이 많았다. 서로 출소자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녀에게 매번 귀를 막으라고 했으며, 자녀를 생각해서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 17).

무엇보다도 사회로 복귀는 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들은 마음 졸여야 했다. 연구참여자 15의 경우, 하다못해 노가다도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일을 시켜준다

는 남편의 말에 ‘힘없고 돈 없는 자신들은 계속 어렵게 살아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다. 14년째 배달 운전만 해오던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수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였다. 또한, 취업이 되고 나서는 직장 내 상사와 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업무적인 충고나 지시를 받으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참여자의 남편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7).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 가정의 빈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아내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갔다.

“요즘에 정부가 그런 곳에 갔다 온 사람들(수감자들)은 택시 면허를 싹 없었어요. 아빠가 원래 택시를 했었는데, 그만 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기술이 있다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건 운전 밖에 없으니까 전에도 택시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하 중략) 정말 우리같이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하고 그게 뭐 지금 현실이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첫째도 그렇고, 열 번째도 그렇고 돈이죠.” (연구참여자 15)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출소자 아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남편의 수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사실에 마음이 어려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만큼은 힘이 되어주길 바랐는데, 도리어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 수감 중 혼자가 된 아내를 나 몰라라 한 시댁이 원망스러워 남편 출소 후 가족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시댁식구들과 대면 대면하게 지냈다(연구참여자 9). 또한, 출소 후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친정 부모님과 죄스러운 마음에 처가 식구들을 피하기만 하는 남편 사이에서 아내들은 어찌해야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연구참여자 17의 경우, 주거지원을 받기 전 오갈 곳이 없어 친정집에서 사는 동안, 죄인이 밥 얻어먹고 늦잠 자는 것도 처가식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자꾸 밖으로 걸돌던 남편 때문에 신경 쓰여 했으며, 오죽했으면 교도소를 다녀오겠냐며 출소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친정식구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 지기도 했다(연구참여자 2).

“친정집에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남편이 나오고 나서 그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가식구들한테 어찌됐든 자기는 죄인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거기서 늦잠 자는 것도 미안하고 장모님한테, 마누라는 출근하니까 장모님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지는 시댁 가서 점심 먹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저는 안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친정집에 있게 되면 생활비도 줄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서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17)

###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한참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에게 남들처럼 사교육과 같은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며(연구참여자 2, 10, 11, 16), 자녀에게 해주는 것도 없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염치없다고 느꼈다(연구참여자 13). 사춘기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 16은 필요한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 사춘기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속상하기도 한 한편, 바라기만 하는 사춘기 자녀들과 부딪치면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6).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애들도 선불리 말을 못 할 거예요. 또 꿈이 있다고 해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선불리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장래희망 같은 건 우리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많죠. 3학년이니깐 장래 뭐 대학가는 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가정생활이 넉넉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밑바탕이 있으면 덜 그럴 텐데 못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 애들은 그거에 대한 못해 주면서 왜 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불리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꺼냈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밑바탕은 해 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염치가 없더라고요, 저는.” (연구참여자 13)

남편의 수감경력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큰 근심거리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사춘기까지 오면서 학교 공부에 소홀해진 큰아이가 걱정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7).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남편의 언어 습관을 자녀가 닮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연구참여자 1).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남편의 수감사실이 드러나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은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힌 묵직한 두려움이었다. 또한, 남편 수감으로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한 불안함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자신과는 달리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수감으로 상처 받을까 제일 불안했으며(연구참여자 17), 상담을 통해 아빠가 갑자기 없어졌던 환경이 자녀에게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주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미안해했다(연구참여자 15).

“갑자기 하나의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면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가족은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남자 아이들이 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군대를 가더라도 엄마 아빠의 직업이나 그 모든 것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투입돼도 되겠다 하구서 투입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저는 불만이에요.” (연구참여자 3)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

남편 출소 후 부부간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 남편의 부재로 인한 부부사이의 공백은 이들의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수감 후 남편은 수감 전보다 사회적이 어려워 더 예민해져 있었고, 아내는 수감 전보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점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번지곤 했다. 연구참여자 14는 남편과 얘기를 할 때마다 '시간을 달라'며 대화를 회피한다며 답답해했고, 연구참여자 4의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 이야기했을 때 잘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주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했다.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 나오니까 세상도 바뀌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다 못해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자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오지 않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사람이 되게 다르기도 하고 되게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성질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몇 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연구참여자 17)

또한, 남편은 자신을 '고슴도치'처럼 가시박힌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가시가 뽑히고 나아질 때까지 자신을 기다려주길 원했다. 그러나 출소 전에 혼자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힘들었을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남편과 소통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대화를 피하는 것만 같아 더 화가 났다. 때로는 동네 부끄러울 정도로 싸움이 났다. 물론 공백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출소 후 처음에는 사이가 돈독했었으나 차츰 시간이 가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은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말하는 남편의 말이 서운하기만 했다. 가정생활이 우선되기 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같이 맞벌이를 하는 처지에 집안 일 돕는 것을 생색내는 태도 때문에 갈등이 되는 가정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 16). 연구참여자 6의 경우, 출소 후 초반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점차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로 예민해져 자주 다투었고, 특히 남편의 문제행동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술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습관 때문에 갈등이 된다는 참여자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3은 남편이 가정보다 술자리를 우선시하는 것 같고 절제하지 못해 화가 나기도 했다.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언어적 폭력을 보이는 남편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4).

“계속 나만 힘든 거 같고, 그냥 한숨소리 나고. 그런 걸 또 얘기 할 순 없잖아요. 니가 그동안 집을 비워서 막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짜증만 나니까 서로 요즘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막 부딪히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어울릴 거 다 어울리고. 저는 일하다가 와서도 애들 밥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저도 가만히 앉아서 쉬고 싶어요. (이하 중략) 제가 원하

는 건 나 없을 때 와서 내가 늦고 그럴 때 자기가 일찍 들어와서 애들을 좀 챙겨주면 본인은 내가 있을 때 와서 나를 챙겨주는 거, 집안일 도와주는 거.” (연구참여자 16)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남편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출소 후 자녀들이 반겨줄 것을 기대했던 남편과 온 가족 고생시킨 장본인인 아빠를 외면하는 자녀 사이에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없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7). 연구참여자 14도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와 부딪치는 자녀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중간에서 중재하려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었다.

“요즘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딸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애가 아직 어리니까 말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엇그제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저렇게 화가 많은 아빠랑 결혼을 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러니까 지도 이해가 잘 안가는. 그래서 뭐 아빠는 외국 갔다 오더니 좀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기억 속에 있던 아빠와 현실속의 아빠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17)

수감 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

남편 출소 후에도 남편의 수감은 여전히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다. 남편이 수감사실을 직장에 알리면 불이익이 생길까 마음 졸여야 했으며(연구참여자 1), 낙인이 두려워 남편 수감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다. 특히, 친정이 중국에 있는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남편과 자녀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꼈다.

“직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수감했었다는 것에 대해) 모르세요. 출소 전에 그냥 애 아빠 물어보면 지방 가있었다고 그러고. (남편이 수감했었다는 것에 대해 알려지면) 은근히 무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친정과 시댁의 지원

외면하고 등 돌렸던 가족들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믿고 의지할 친지들 덕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남편이 수감 전부터 가족들에게 잘 했던 경우, 출소한 남편을 친정어머니가 다독여 주기도 하고(연구참여자 8), 친정 부모님이 딸의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으나 기죽지 않도록 현재 열심히 살도록 지지해주셨다(연구참여자 9). 쉽진 않았지만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 출발을 응원해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아내들은 이에 부응하려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는데, 연구참여자 10의 경우 학원 강사인 여동생이 조카들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과 함께 과외비를 지원해주는 등 자녀학업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주거공간이 없어 오갈 곳 없는 가족에게 친정 집을 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출소한 남편이 친형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9).

“부모님도 그냥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뭐 애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하소연이죠. 지금은 그냥 잘해주세요. 전에 있었던 그런 내색 같은 거 전혀 안하고 흑시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기가 죽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도 남한테 싫은 소리 안하시는 성격이라 지금 열심히 사는 거에 만족하시고 좋은 날 있길 기다리시는 분들이라.” (연구참여자 9)

“다행히 이모가 학원 수학강사여서 이모가 진로를 많이 정해주고 과외 같은 경우도 다 해줘요. 영어 과외비도 이모가 다 대줘서 공부를 시켰고. 제일 고마운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애들 학습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언니가 그 쪽으로.” (연구참여자 10)

#### 역경 극복의 밑거름

남편 출소 후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주변 지인의 공감, 지지와 현실적인 지원이었다. 연구참여자 3은 남편이 상담을 받고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고, 연구참여자 7은 친정가족 특히, 친정오빠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준 것에 대해서 큰 힘을 받았다. 시댁 식구들의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종교생활과 취미

또는 학업 등 다른 활동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보고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9는 육아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요리를 배우려는 투자를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남편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종교생활에 의지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남편 출소 후 생활이 힘들어지던정 주변의 지원과 노력 속에서 낯선 시간들을 견뎌가고 있었다.

“택시일도 힘들잖아요. 새벽에 잠 못 자고 나가고 술 좋아하시니까 흑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가 항상 있어요. 다른 직업하고 다르고 좀 조바심이 나고. 나는 백프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고 가족들의 건강 이런 게 다른 직업보다 걱정이 되고 혈압약을 지금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잖아요. 과로하죠. 이러다보면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면 제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생각 없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종교생활을 다시 해서 균형 잡고 예수님이 사회를 대하듯이 그런 견해를 가지면서 인생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사람이 꼭 있어서만 우대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2)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달세를 못 낼 정도였거든요. 집이 2천에 25만원이었는데 못 낼 정도였어요. 그걸 서서히 까먹다가 나중에는 인제 천만원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가 있는 동안에 한 삼백만원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삼백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아등바등하

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조의금 들어온 걸로 한 이백만 원 받아서 쓰고요. 시누형님이 한 번씩 도와주고 형님이 한 20만원 도와줬나? 20-30만원 도와줬나? 우리 친정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음식은 도와주되 그런 일은 가서 벌어들여 이런 주의예요.” (연구참여자 7)

“집에 있으면서 좀 더 덜 쓰고 아끼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그 정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면 그 때 이제 뭐가 일 좀 해보려고 한식 조리사도 좀 따 왔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보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는 이제 맞벌이만이 최선이 아니고 그냥 신랑이 가지고 오는 것에서 조금 덜 쓰면서 아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9)

####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빈자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존재는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로 방황하던 자녀들에게 남편의 출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가정에 안정을 주기도 하였고, 아버지 역할의 부재를 대신해야 했던 아내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다. 연구 참여자 15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좋아하는 자녀를 보며 행복함을 느꼈고, 뉴스에서 사건사고를 보며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남편이 고마웠다. 연구 참여자 17은 자녀가 아버지와 아무리 싸우더라도

아빠 없는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아내들에게도 남편의 존재는 큰 힘이였다. 곁에서 떨어져 남편을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느꼈고, 연구 참여자 15는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잘났든 못났든 애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였다.

“지금은 내가 정말 큰 고비를 잘 넘겼구나 라는 대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저희 신랑도 일단 중심을 잡아 주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집에 있으면서 내조만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뭐냐면은 이제 너무 좋을 시기에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남편이 수감된 아내들이 텔레비전에 힘들다고 나오면 힘든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저는 서로 부부기간에 신뢰만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 환경이 어려울 땐 기댈 곳이 아예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일어설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이 그나마 라도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또 나와서는 신랑이 이제 책임의 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앞을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오후에 잠깐 애들하고 놀고 뭐 이래서 애들하고 거의 많이 놀아주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죠. 마냥 좋아하죠.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자고 같이 자고 같이 잠자도 밤에 안 나가고 (네.) 아침에 눈떠

도 아빠가 옆에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딸이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거나 (네.) 한 번씩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계속 불신만 있다가,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깐. 하려고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작게 실천이 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확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건 거짓말이구요. 그래도 미래를 한 번 씩 볼 수 있다는 느낌 같이 미래를 같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3)

#### 남편의 재발견

남편 출소 후 부부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포기하는 부분이 생겼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부부는 서로 절실했다고 표현했다. 떨어져서 지낸 기간 동안 남편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부인들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 11은 수감 전에는 무엇을 물어봐도 말이 없고 대화를 회피했다면, 출소 후에는 사소한 것도 잘 이야기 해줘서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였다. 한편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남편이 수감 전에는 가족관계에서 권위적이고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출소 후에는 진로문제나 자녀결혼 등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14는 출소 전보다 남편이 자녀를 돌봐주거나 집안 일을 거드는 일이 많아졌고, 연구 참여자 13

은 소소한 집안일을 잘 도와줘서 남편의 불신이 조금씩 해소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자녀를 등하곶길에 데려다주며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문화생활도 즐겼다. 생활 태도에서도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매일같이 술을 먹어서 깊은 갈증이 있었는데, 출소 후 술을 끊고 ‘사람 사는 게 달라졌다’고 표현하였고,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술을 먹더라도 집에서만 먹어 불안함을 덜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전히 힘든 역경을 경험하면서도 부부는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족으로 변화해가기도 했다.

“저하고 저희는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전 보다도 지금이 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애기 아빠고 남편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말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아픈 남편이라도, 누워 있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계셔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의 소중함이라던가 뭐 그다지 대화나 말투나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지만 생각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5)

“지금은 이제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살길 잘했다 싶은 게, 이렇게 애들이 좋은 사위들을 만나고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남편이 열심히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은 애들이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남편 출소하고 나서,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애들도 장학생이 됐어요.” (연구 참여자 2)

“요번에는 술을 거의 끊다시피 이제, 안 끊다가 최근에 인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자고, 만나면 회 먹거나 이러면 한두잔 먹는 정도는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밖에 없어요. 술 끊고 나니까 사람 사는 게 달라졌어요.” (연구 참여자 7)

“사소한 것도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하니깐 저는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해주고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연구 참여자 11)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도와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소소한 거 가정생활도 그렇구요. 그 전에는 너무 가부장적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다는 거. 다른 거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니깐. 그게 작은 거에 변화가 서로 간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남편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그 전에는 아직도 불신은 있지만 작은 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깐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3)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

출소자 가정의 국가지원 사항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단연 주거지

원이었다.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친정집과 월세를 전전했던 출소자 가정에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은 큰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교육, 심리상담, 자녀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혼자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감당해야 했던 부인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지원은 큰 도움이었다. 연구 참여자 15는 자녀에 대해 상담 받으러 갔다가 자신이 먼저 상담을 권유받아 지원받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연구 참여자 3은 남편이 출소 후 개인상담을 받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였고, 연구 참여자 11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 1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 8은 남편 출소 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자 10은 출소 후 보건복지부 공단에서는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을 안내받는 것이 도움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처럼, 생활 기반이 어려운 출소자 가족에게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힘겨운 생활 가운데 작은 희망과 힘으로 여겨졌다.

“저는 그 한달 보름 전부터 공단에서 힘든점들을 개인상담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맘이 많이 편안해지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저 개인적으로만 많이 힘들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용기가 됐죠.” (연구 참여자 3)

“이제 구에 지금 저희는 유성구에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사회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있어요. 구청에

서 나와서 하는 근데 지금 그 사무실도 저희 집 근방에 있고. (아.) 거기에서는 무슨 교육 같은게 있으면 부모교육, 아이들 상담 교육, 아니면 뭐 아이들과 요리 만드는 시간, 케익 만들기 시간, 극장가기, 기차여행 가기,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주세요. 그런 정보를 이제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은 각자 이제 한 번씩 기회를 줘서 다 거기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 거기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데, 그런 부모교육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중략> 딸이 갑자기 그런 환경이 아빠가 있다나 없고 갑자기 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산만해졌다고 해야하나? 그런 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지를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아이 그런 심리치료 같은 거를 받게 하고 싶어서 갔다가 엄마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를 듣고서는 진짜요? 제가 더 문제가 많은가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이가 헛갈려 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받아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낳아놓고 먹이고 씻기고 혼내키고 이런 줄만 알지 요즘같이 막 그런 교육이라는 거를 접해보지를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고.” (연구참여자 15)

“막내는 도서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둘째는 안경을 지원받았고 큰애는 대학생 멘토 학생 붙여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알아만 보고 있는 중이고.” (연구참여자 3)

“중학교는 크게 방과 후가 없어요. 그 때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둘째하고 셋째만 받았죠. 방과 후 지원 받았고요. 경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때 제가 불러 나가면 가정이 안 지켜질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애들은 안 잡아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애들을 저는 항상 지켜보고 관찰하고 항상 그 성향을 파악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제 인생에는 자식 바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불러 가면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이 좀 되려나 모르겠는데 눈물이나.. 그 부분은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연구참여자 7)

#### 삶과 타협하기

아내들은 출소한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과 싸움을 해야 했다. 남편 수감기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괴로워 바쁘게 일을 하며 피한다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억눌렀다(연구참여자 13). 또한, 일과 자녀양육으로 지칠 때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다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연구참여자 16). 출소한 남편과 싸울 때에도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 내는 게 싫어 말하지 않고 참기도 하고(연구참여자 17) 옛일은 덮어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연구참여자 13). 남편의 수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여기의 삶을 참으며 버텨내고 있었다.

“제가 참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는 참고 이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는 신랑한테도 들어가기 전에는 화가 나면은 내가 뭐뭐뭐 뭐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을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큰소리 나는 게 싫으니까 큰소리 내면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면 어차피 또 싸우게 되고 싸우면 애들이 또 보게 되고 이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17)

####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조력자로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출소 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저축을 한다거나(연구참여자 8), 남편의 일 자리를 대신 알아보고 다니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5). 한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감사실이 노출될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남편을 다독이는 것도 아내의 몫이었다(연구참여자 17).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 지지 뿐 아니라 외출할 때 옷차림까지도 신경 써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연구참여자 8). 출소자 남편에게 아내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였다.

“사회에 복귀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불안해해요. 취업을 하면서도 자기의 과거가 알려지는 건 아닐까? 거기다가 이제 관리직에 있다가 횡령에 연루된 이런 거라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하다 못해 다시 채취

업을 할 때에도 항상 신원조회를 한다.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 네.) 신원조회하면 어디까지 정보가 조회가 될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죠. 신원조회 라는 게 신용이 어떤지 보는 것뿐이지. 당신의 살아온 과거이력을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본인은 나와서 계속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고 또 몇 달 쉬고, 또 하다가 아, 못하겠어. 탄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끈기 없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쫓 참아. 내가 뭐 이렇게 자리 잡을 날이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미래 희망적인 이야기는 해줘요.” (연구참여자 17)

####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

출소자들의 아내는 남편의 수감 경험이라는 역경을 조금씩 받아들여 가고 있었다. 출소자의 아내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바닥을 치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은 못났지만 자신의 남편, 자녀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10은 친구가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수감과 출소는 가족과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남편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자신의 삶에 중심이 되어버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남편의 수감이라는 역경을 견뎌 온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올라갈 곳만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10은 금전, 사람, 적금, 보험 등 재산을 다 날리고 제로가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건강하고 자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절약을 하다 보니, 평소에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삶의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낸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많은 위인들의 성공담화에도 고비가 빠질 수 없었던 것처럼 남편 수감이라는 역경을 하나의 계기로 생각하고자 했다.

“제가 남편을 원망을 안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복운이 없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 전생애에 업이었던 어떤 이유에서건 이걸 내거더라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해도 안가고. 남 보기도 부끄럽고, 너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솔직히 창피스럽고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별에 별 마음이 다 들었어요.<중략> 피한다고 피해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전생애 지은 죄든 뭐가 당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떡해요 억울하다 한들 속만 상하고 밉다 밉다 한들 내 상처내기 밖에 더 하겠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남편이 잘못했고 남편의 문제다가 아니고 내가 봐야 될 내 문제로 저는 받아들였어

요. 봐야 될 남편이고 봐야 될 자식이고 당해야 될 내 것이고. 내 문제로 받아들인 그 차이겠죠?” (연구참여자 7)

“사람이 힘든 상황 일 때도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살다보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면회 갈 때도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기사님들이 또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내일은 해가 뜬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연구참여자 2)

“어쨌든 잘났든 잘 못났든 애기 아빠고 애 아빠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도 올 것이고 지금 나이도 어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그런 분들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움받을 건 받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성적이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힘들고 하면 꼭 옆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해결을 하고 어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도움도 좀 받고 그러면 좋은날도 올거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신랑하고 관계도 예전에는 신랑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항상 당연히 해주는 걸로 하고. 신랑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은 그 때 없던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랑의 역할이 얼마나 컸나 내가 못하는 부분도 신랑이 항상 채워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도 신량이 차지했던 부분이 이렇게 컸구나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연구참여 여자 10)

####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

남편의 출소 경험은 아내들에게 긍정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벽으로 출소 후 대다수의 가정에서 잦은 다툼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술 때문에 수감되었던 연구참여자 3의 남편은 출소 후에도 한번 술 먹으러 나가면 집에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기고 새벽에 돌아와 아내를 힘들게 했다. 잦은 다툼으로 부부관계는 악화되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상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출소 후 자기 주장이 강해진 남편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며, 연구참여자 6은 돈 문제로 싸울 때마다 남편이 ‘넌 내가 돈으로 보이냐’라고 할 때마다 서운함을 느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고 잦은 싸움에 지친 연구참여자 17은 싸움 기미가 보이면 입을 닫아버렸고, 연구참여자 3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고 고백했다.

수감과 출소의 역경을 거쳐 온 아내들은 지쳐있었고, 특히 마음이 굼아있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해지고 현실적으로 변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더 이상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다(연구참여자 3). 또한, 남편 수감 중 어려웠던 시기가 떠오를 때마다 괴롭고, 그 여파가 오래가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아가려 했다(연구참

여자 13).

출소 후 비어있던 남편의 자리가 채워지면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자녀와 남편 간 갈등의 골도 깊어져만 갔다. 연구참여자 14의 자녀들은 특하면 화를 내는 아빠 눈치를 보며,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연구참여자 17의 자녀들은 출소한 아빠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여 아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으며 심지어는 ‘왜 저렇게 화가 많은 아빠랑 결혼했냐.’고 연구참여자에게 물었다.

“(출소 후 부부관계가) 악화가 된 상태고 제가 포기를 하죠. 서로 간에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출소 후)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챙긴다는 게 살아남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책임감 없이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방치되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제가 더 정신 차리고 냉정해져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상담을 하고나서 본인(남편)이 감성적이고, 저는 이성적이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구참여자 3)

“오히려 (남편이) 없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듣고 되게 착한 아이거든요. (남편 수감 중) 저랑 지낼 때에는 되게 잘 지냈어요. 영화도 보러가고 제가 또 아빠가 없기 때문에 월급 받으려면 번씩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시켜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놀러 다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딱 (감옥에서) 나오면 서부터 이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남편 수감 중에) 했던 대로 ‘엄마, 이번 주에 무슨 영화 나왔는데 영화 보러가요.’하면 아빠가 ‘아 다음에 보자.’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빈정이 상하는 거죠. 자기는 엄마랑 있을 때는 잘 지냈는데, 아빠가 오면서 모든 주도권을 아빠가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니깐 그거를 아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7)

**남편의 출소 후 아내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분해한 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재조합

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원인이 되는 현상들로 구성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수감감 속에서 은폐된 생활이라는 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들로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으로 상정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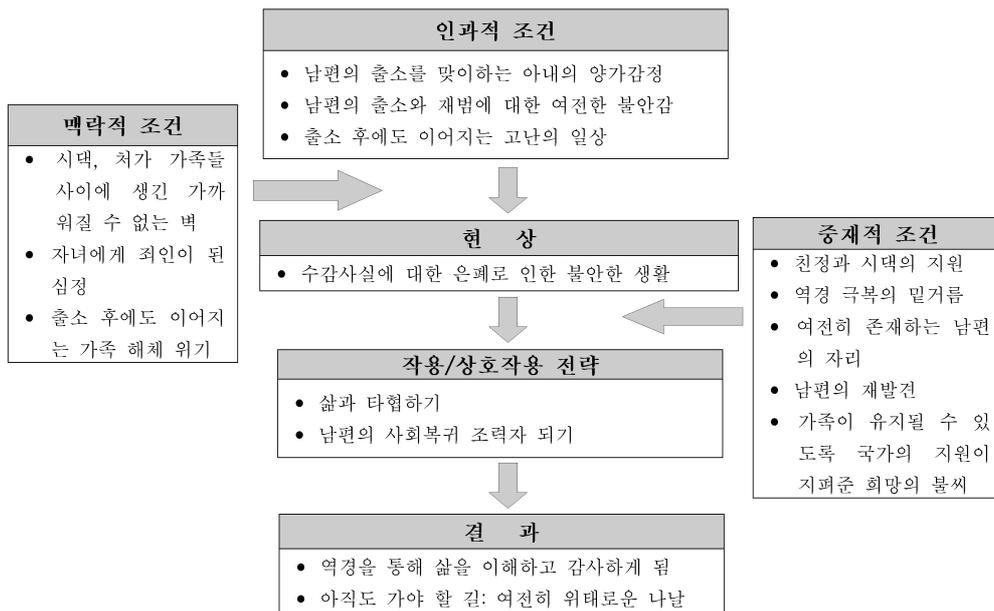


그림 1. 남편출소 후 아내의 삶의 도정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표 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본질	긍정 - 부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강도	강함 - 약함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	강도	강함 - 약함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 현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으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으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을 현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

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가 타인에게 수감사실을 은폐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더했다고 판단되어 맥락적 조건으로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표 4.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	기간	일시적 - 지속적

표 5.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깊이	얕음 - 깊음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강도	강함 - 약함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	강도	강함 - 약함

표 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친정과 시댁의 지원	강도	강함 - 약함
역경 극복의 밑거름	적극성	적극적 - 소극적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영역	전부 - 일부
남편의 재발견	강도	강함 - 약함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	기간	일시적 - 지속적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고 다루는 의도적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결과는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과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8과 같다.

**선택코딩**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가족 갈등의 불씨를 안고 낙인감을 넘어 가족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상정했다. 차라리 “남편이 없었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다”(연구참여자 7)는 한 연구참여자의 구술처럼, 남편의 수감으로 일순간 삶이 통째로 뒤바뀌었던 아내들은 남편 출소와 함께 다시 가족을 재구성해나가며 남편의 수감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였다. 아내들은 남편 출소 후, 남편이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보다도 남편의 수감 사실

표 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삶과 타협하기	강도	강함 - 약함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	적극성	적극적 - 소극적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	영역	전부 - 일부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	강도	강함 - 약함

이 주변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생길까 가슴 졸여하는 등 남편의 수감은 여전히 아내들에게 수치감으로 남아있었다. 냉대어린 시선이 가득한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아내들은 점점 더 가족들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고립되어갔다. 이처럼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가족뿐”(연구참여자 1)이라는 아내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또 다른 갈등의 원천지였다. 수감 중 홀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출소한 남편이 보듬어주고 가사를 도와줄 것이라는 아내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리어 아내들에게 이해만을 바라는 남편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내와의 대화를 피하고 화만 내는 남편 때문에 수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했고, 공백 기간 동안 비어있던 ‘남편’과 ‘아빠’의 자리로 되돌아가며 성장통을 겪는 남편과 끊임없이 부딪치며 상처받았다. 특히, 오랜만에 마주한 아빠의 눈치를 보거나 가족을 고생시킨 아빠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자녀들을 보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내들의 삶 속에도 잔존 자원은 남아 있었고, 이는 아내들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이전의 일들은 덮어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라며 지지와 공감을 아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친정, 시댁식구들의 도움을 비롯하여 종교생활 및 상담을 통해 아내들은 삶의 재건을 다시금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연구참여자 15)는 옛 어른들의 말처럼, 출소 후 가정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계속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연구참여자 17)는 데에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출소 후 술도 끊고

아내의 뜻에 최대한 맞춰 살며, 자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의 편지를 전하는 등 점차 남편도 아내와 자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싹트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외출 시 옷차림까지 신경써주며”(연구참여자 8) 남편의 사회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하였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려나갈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비록 남편의 수감은 아내에게 여전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로 남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고 근근이 삶을 버텨내기도 했지만, “남편 수감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제로화 되어버린 10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더 젊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연구참여자 10)는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꿈꾸며 가족재구성을 위한 삶의 변화과정을 감당하고 있었다.

남편 출소를 경험한 아내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이었다. “낙인이 두려워 남편 수감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연구참여자의 말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가족 안으로 더 숨어 들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이 수치감 속에서 은폐된 생활을 살아간 원인이자 조건은 『남편의 출소를 맞이하는 아내의 양가감정』, 『남편의 출소와 재범에 대한 여전히 불안』,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고난의 일상』이었다. “출소자 가정이 되어 교도소 다녀왔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되는 것”(연구참여자 16)에 대한 두려움 뿐 만 아니라, 출소한 남편의 문제행동과 다시금 범죄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또한, 남편 출소 후에도 대부분의 아내들이 경제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였음에도, 남편의 빛과 불안정한 직업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대부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합쳐진 출소자 가족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이 때, 시댁, 처가 가족들 사이에 생긴 가까워질 수 없는 벽, 『자녀에게 죄인이 된 심정』,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가족 해체 위기』는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을 더욱 강화시켰다. 남편 수감을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을 불신했던 시댁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오죽했으면 수감이 됐냐며 감옥에 다녀온 것이 창피하다”(연구참여자 2)며 방문을 꺼려하시는 친정부모님을 보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해야 했다. 또한, 남들처럼 자녀에게 못해주는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미안해했으며, 부모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녀에게 염치없다”(연구참여자 13)고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고 취업할 때 남편의 수감이 문제가 될까 걱정(연구참여자 13)되기도 하였으며, 자녀가 남편의 수감으로 상처받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남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남편과는 각자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만 토로하며 서로에게 이해받기만을 원해서 대화를 하려 하면 늘 싸움으로 번져 답답했으며, 남편과 자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가족해체의 위기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들로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 현상이 더욱 고착되는 듯 싶었으나 『친정과 시댁의 지원』, 『역경 극복

의 밑거름』, 『여전히 존재하는 남편의 자리』, 『남편의 재발견』,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지퍼준 희망의 불씨』들이 무너져가는 아내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 친정, 시댁식구들의 경제적 지원과, 상담과 종교생활을 통한 공감과 지지, 그래도 자녀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아내 곁에 있어주는 대들보 같은 남편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점차 변화해가는 남편을 보며 신뢰가 싹트고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삶과 타협하기』,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되기』로 현실 고통을 잊으며 수치감 속에서 은폐된 생활을 견디고자 하였다. 남편의 수감은 여전히 아픔이었고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등 홀로 참아냈다. 그러는 한편, 취업 준비로 불안해하는 남편을 다독이기도 하고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도맡아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연구참여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남편의 수감 사실을 다루어 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와 함께 또다시 흔들렸던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을 통해 역경을 받아들이고 버티려 노력했다. 비록 역경은 있었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바르게 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안쓰러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용력과 건강하게 잘 자라준 자녀들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남편에 대한 바람과 기대, 그리고 출소자 가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갈증과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출소한 남편과의 삶의 재건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으며, 남편 출소 후 갈등과 잦은 다툼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 속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남편과의 싸움에 지친 연구참여자들은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싸움의 기미가 보이면 입을 다물어버렸다. 남편의 수감과 출소는 연구참여자들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했지만, 역경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을 좀처럼 믿지 못하며 어려웠던 시절들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움을 느끼는 등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자녀와 남편간의 풀리지 않는 갈등을 지켜보는 것 또한 답답했으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역경을 극복해 내가는 과정 중에 서 있었다.

####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결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출소 후 아내의 경험의 경로를 그림 2에서처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 수치감/고립감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로 『수감사실에 대한 은폐로 인한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의 출소와 함께 출소자 가정으로 낙인찍힌다는 두려움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수치감/고립감을 느꼈다.

#### 은밀한 타진(打診)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수치감 속에서 은폐된 생활을 하며, 믿고 의지할만한 것은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족 간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가족 안에서 남편과 자녀의 마음이나 사정을 함께 살피며 남편 수감으로 흔들렸던 가정을 다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 잔존 자원 동원 단계

다시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주변에 남아있는 자원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가능한 경제적 지원들을 신청해서 받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을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 도전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이왕 이렇게 된 것 더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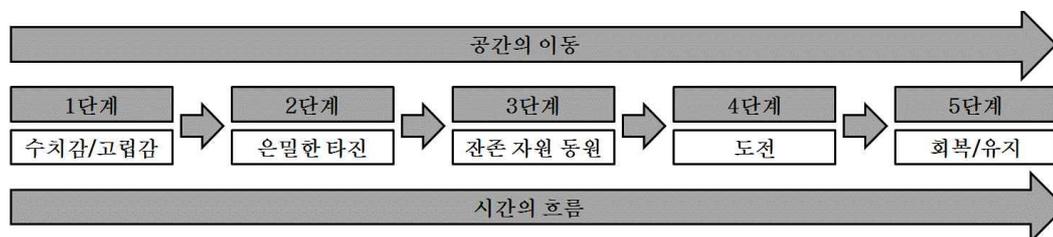


그림 2. 남편의 출소 후 아내의 경험에 관한 과정분석

히 살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못마땅하게 대해도 마음을 비우고 남편을 대하려 노력하였으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역경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의 사회복귀 조력자 역할을 하며, 남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연구참여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자녀의 상처에 대해 고심하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회복과 유지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라는 또 다른 역경을 경험하였지만, 「역경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됨」을 통해 가족재구성의 희망을 품고자 하였다. 가족을 재구성하기 위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바르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을 지킴으로써 좋은 사위와 손주를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정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며 더 노력하고자 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남편 출소 후 가정을 유지하는 아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근거이론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로 인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근거이론을 통해서 출소자 아내들이 남편의 출소라는 사건을 접한 후 새롭게 경험한 다양

한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 극복과정들을 탐색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자료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막막하고 두려운 시작』, 『근목자후에 대한 염려』, 『남편의 문제행동』 등 총 44개의 하위범주, 16개 범주로 정리하였고, 이를 아우르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상정했다.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을 배열하였고, 선택코딩을 통해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까지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출소 후 심각한 생활고, 가족과 갈등,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출소자 아내들이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수감 중 홀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가 남편 출소를 앞두고 더 이상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남편이 출소 후에 취업할 수 있을지, 출소한 남편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 새로운 출발선에서 염려되는 것이 많았다. 또한, 남편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주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것에 대해 앞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불안 때문에 남편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만 편하게 생각하며 어울려 다니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과 어울리는 남편을 지켜보며 또 다시 수감되진 않을까 재범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술을 마시면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을 오롯이 감당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뿌리깊은 수치감을 느끼며 가족을 포함한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지 못한 채 고립무원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남편 수감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해 하고, 이로 인한 낙인이 두려워 비밀을 감추는데 전전긍긍하였다. Lewis(1987)는 수치심이란 타인에게 비친 자기(self in the eyes of the other)의 경험으로,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된 자신이 타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지게 하여 타인으로부터 철회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이지연, 2008에서 재인용). 실제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기제, 정서표현에 대한 이지연(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치심이 높은 경우 자기억제 방어와 갈등회피 방어 뿐 아니라 투사, 수동공격, 행동화 방어 등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수치심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가족,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이인숙, 최혜림, 2005) 각종 정신병리와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구현경, 김종남, 2014). 또한, Johnson, Kim, Danho(1989)와 Johnson 등(1987)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성차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같은 상황에서 더욱 많은 수치심 및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남편의 수감경험으로 인한 수치감으로 정신병리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수치감 속에서 은폐된 생활에

고립되어있는 출소자 아내들이 자기 노출과 자기 표현을 통해 사회로 흡수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접근을 줄여가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남편의 출소 이후 출소자 아내의 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 출소 후, 연구참여자들은 고된 일과 양육으로 지쳐있었다.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자녀를 돌보고 남편의 빚을 갚느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 가정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범 죄자라는 생각에 서로 왕래도 인사도 없었고, 남편 출소 후 가족 구성원간 갈등으로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유리 깨지는 소리와 소리 지르는 소리를 접하며 살았다. 남편의 불안정한 직장문제도 고충이 많았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직장을 곧 관둬버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였고, 남편은 직장에서 자신의 수감경력이 알려지진 않을까 불안해했다. 한편, 남편 수감 중 가족의 외면으로 응어리진 마음과 원망감도 많았다. 자녀에게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생활고로 인해 학업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해하였고, 성인 자녀를 둔 경우 경제적으로 오히려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대학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자녀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과 관계는 골이 깊어지고 파국을 맴돌았다. 부자간 싸움에 아내는 전전긍긍하며 가족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다. Petersilia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는 사회복지 당시,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출소 이후 자립기반의 취약, 사회로부터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고(남재성, 2008에서 재인용), 윤옥경(2007)은 범죄자 가족의 상당수가 남편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가지고 있어 관계유지를 바라지 않으며 가족관계 해체 및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수감이전부터 서로 간 신뢰가 있었는지가 가정해체를 막고, 가족의 재구성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남편의 수감이 가족부양 중 실수로 인한 결과라고 믿거나 억울하게 수감되었다고 믿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남편에 대한 감옥수발을 하였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한편,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이미정, 1993; 윤아랑, 2004에서 재인용) 심리적 적응과 문제 해결 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깊은 수치심과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출소자 아내에게 이러한 현실적 압박과 어려움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큰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다각도의 어려움에 노출된 출소자 아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했다. 실제로 남편이 수감 중이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의 어려움은 홀로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고충이었다면, 출소 후에는 재범에 대한 걱정, 남편의 문제행동, 남아있는 빛에 대한 압박, 남편의 전과로 인한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 관계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다.

출소자 아내들은 출소자의 재범과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출소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이동훈 등, 2015) 심리적 상담뿐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관련 상담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이동훈 등, 2015), 이것은 출소자 아내의 어려움이 심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회생을 위한 적절한 채무상담 지원, 출소자들에게 국가나 공공, 민간에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아내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팜플렛 제공, 출소자 개개인을 위한 적성과 성향을 고려한 취업지원, 출소 후 급격한 자신감하락으로 다른 일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출소자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가 남편 출소 이후에도 가정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족 간 신뢰였다. 친정어머니가 사위도 자식이라고 다독여주거나 딸의 결혼생활에 안타까우면서도 기죽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 줄 때는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댁의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도 큰 힘을 받았다. 남편 출소 이전부터 남편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했다. 이것은 이신영(2008)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수감동료 중 가족의 지지가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 못지 않게 사회적 지지도 큰 힘이 되었다. 남편 출소 후에도 바르게 성장한 자녀를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남편의 출소에 대한 사정을 잘 알면

서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지인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극복자원이 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이옥형, 2012; 이자영, 최웅용, 2012; Cohen & Hoberman, 1983; 구현경, 김종남, 2014에서 재인용) 출소자 아내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경제적 지원도 남편 수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족들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해 주거나 친정과 시댁에서 주거공간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많은 출소자 지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 후 재범에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빈곤과 사회복지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한다(Martin, 2011). 가장 효과적인 출소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주거와 취업이라는 선행연구(Mulmat & Burke, 2013)에서도 가능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에게 출소자의 사회적응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남편의 태도 또한 연구참여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자원이 되었다. 출소 후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본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마음의 문을 닫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나 연구참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자녀와의 대화 빈도가 늘었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았다. 이럴 땐, 가족구성원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몫이었는데 사회복지의 조력자로서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기도 하고,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감추거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족 간 불화를 줄이는 역할도 하였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남

편의 수감경험을 억누르고 감추며 힘겹게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였다. 역경을 버텨낸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이라는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수감경력이 있는 남편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하였다.

이와 같이, 출소자 남편의 아내들은 가족구성원의 중심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았다. 남편의 조력자이자 자녀의 보호자,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홀로 떠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는 출소자 당사자를 위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다면, 출소자 가정 복원과 회복의 중심에 있는 아내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줄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과, 자녀의 학업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 아내의 취업지원과 심리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이 그것이다. 가족은 출소자 재범을 막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출소자에 국한된 서비스뿐 아니라(신연희, 2015), 출소자 가족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가정의 아내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는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전체 출소자 가운데 매우 적은 수이며, 이는 일반적인 출소자 가정에 비해 매우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지원을 받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수감 전부터 가족관계가 좋고, 수감 중에는 모범수인 경우가 많아 다른 일반적인 출소자 가정에 비해 생활의 안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

여자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았을 수 있다. 한편,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로서 공단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되기 보다는 연구자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출소 후 결혼생활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3개월부터 최대 36개월이었다.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18개월로 나타났는데, 남편 출소 후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출소자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출소자 가정의 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 출소자들의 유형과 수감 기간에 따른 아내의 경험 연구 또는 자녀의 나이대별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 김동민, 양대회 (2010).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성향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 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2012). 중산층에서 탈락한 개인들의 경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195-230.
- 남재성 (2008).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Micro-Credit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40), 55-81.
- 동아일보 (2013, 11, 26). [보이지 않는 형벌, 흉악범의 가족] 사건전후 '달라진 생활' 14명 심층분석. <http://news.donga.com/3/all/20131126/59136993/1>에서 2016, 01, 04 자료 얻음.
- 신연희 (2015). 출소준비 수형자의 가정실태와 가족재결합 관련요인. *교정연구*, (67), 183-20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교정시설 수용 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9)에서 2016, 01, 25 자료 얻음.
- 서울신문 (2013, 01, 25). [주말 인사이드] "범죄자 딸이래"...예비 범죄자 낙인에 멧드는 수감자 자녀 7만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6014001>에서 2016, 01, 11 자료 얻음.
- 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201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1)-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 육성방안. *연구총서*, 2012(10), 1-317.
- 윤아랑 (2004). 편집 및 우울성향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25, 33-46.
- 윤옥경 (2007). 소년 수용자의 가족 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교정연구*, 34, 35-58.
- 이동임, 천정환 (2015). 교도소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가족관계 및 교정·교

- 화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67), 127-153.
- 이동훈, 신지영, 방기연 (2015). 절망 속에서 희망 찾기: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의 교도소 수감 및 출소에 대한 부인의 경험. *상담학연구*, 16(4), 595-619.
- 이신영 (2008).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8), 139-161.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인숙, 이지연 (2009). 상담일반: 여성의 대상관계, 수치심,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1951-1969.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자영, 최용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 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정선화 (2012).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http://koreha.or.kr/support/support-work?item=5>에서 2016, 01, 25 자료 얻음.
- Bahr, S. J., Armstrong, A. H., Gibbs, B. G., Harris, P. E., & Fisher, J. K. (2005). The reentry process: How parolees adjust to release from priso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3(3).
- Carlson, B. E., & Cervera, N. (1991). Inmates and their families conjugal visits, family contact, and family function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3), 318-331.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ill, R. (1965).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In H. J. Parad (Ed.). *Crisis Intervention: Selected Readings* (pp. 32-52).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 Homer, E. L. (1979). Inmate-family ties: Desirable but difficult. *Federal Probation*, 43, 47-52.
- Johnson, R. C., Danko, G. P., Huang, Y. H., Park, J. Y., Johnson, S. B., & Nagoshi, C. T. (1987). Guilt, shame, and adjustment in three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357-364.
- Johnson, R. C., Kim, R. J., & Danko, G. P. (1989). Guilt, shame and adjustment; A family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71-74.
- Jorgensen, J. D., Hernandez, S. H., & Warren, R. C. (1986). Addressing the social needs of families of prisoners: A tool for inmate rehabilitation. *Federal Probation*, 50, 47.
- Lowenstein, A. (1986). Temporary Single Parenthood-The Case of Prisoners' Families. *Family Relations*, 35(1), 79-85.
- Martin, L. L. (2011). Debt to Society: Asset

- Poverty and Prisoner Reentry. *The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38(2), 131-143.
- Mulmat, D. H. & Burke, C. (2013). Addressing Offender Reentry: Lessons Learned From Senate Bill 618 San Diego Prisoner Reentry Program. *Corrections Today*, 75, 24-27.
- Nesmith, A., & Ruhland, E. (2008).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hallenges and resiliency, in their own wor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10), 1119-1130.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Showalter, D., & Jones, C. W. (1980). Marital and family counseling in prisons. *Social Work*, 25(3), 224-228.
- Yocum, A., & Nath, S. (2011). Anticipating father reentry: A qualitative study of children's and mothers' experienc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0(5), 286-304.
- 논문 투고일 : 2016. 02. 17  
1차 심사일 : 2016. 02. 26  
게재 확정일 : 2016. 04. 27

## The Road Less Traveled: Path of Life that Ex-offenders' Wives Experiences After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DongHun Lee

Jiyeol Jeon

Juyeo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7 ex-offenders' wives who received housing support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In open coding, 143 concepts, 43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 were 'ambivalence of wives who encounter the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anxiety about the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and recidivism', and 'trials and tribulations of everyday life after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Central phenomenon was 'precarious livelihood by concealment of imprisonment'. Strategies were 'compromise with reality' and 'support husbands to reentry to the society'. Consequence was 'thanks to life via adversity' and 'the road less traveled.' In process analysis, main theme was 'process towards family resiliency after get over the stigma and family conflicts', and five phas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and in selective coding. Based upon the research outcomes,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ex-offenders' wives and the needs for ex-offenders' families resiliency was discussed.

*Key words* : Ex-offenders, Experience of Ex-offender's Wife,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